

예 배 WORSHIP

February 3,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3:16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208장 / 내 주의 나라와 <small>(통일찬송 246장)</small>
헌신과 나눔	봉 헌 / 정줄리 권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세상 모든 민족이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유동숙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4:1-17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목상에세이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 입 벌린 악어의 이빨,
아버지의 퇴직금 등이지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의 심기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생똥맛다 싶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여 친구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친구 이야기에 감사하기보다
잘사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내 삶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한희철 목사 (정릉감리교회)

한 주간의 기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 주님을 말로만 따르다고 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깨달아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쉽게
시험들지 않게 하소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혹은 내가 맞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며 성령님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권리 있다 부지(부지) "나를 돌리니 내가 돌리리니 나에게는
권리 없다 부지(부지) "나를 돌리니 내가 돌리리니 나에게는"

교회와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교인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 『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한다.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독특한가?

첫째, 교회가 작을수록 독특한 면이 커진다.

교인 수가 50명의 교회 간에는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교인 50명여의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나 떠나면 특정 사역이 중단되기도 하고, 어떤 이가 안나 오면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반면, 교회가 크면 개인들이나 그들의 인격적 특성이나 인행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전체적 균중심리가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것이 큰 교회들이 리더십 운영 원리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특이한 교인을 다룸과 동시에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다룰 문제들이 상이하다.

둘째, 다른 교회들과의 공통점을 알면 상이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이 공통점을 무시하는 핑계가 되면 안된다. 교회 리더십의 공통분모를 충분히 숙지해야 자신의 교회의 독특한 측면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 교회의 독특한 특성을 통해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어느 누구와도 공통점이 없는 역사와 문화와 인격적 특성이 존재하기에 교회 리더십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알아야 한다.

규모가 다르면 우선 순위도 다르다.

● 큰 교회는 비전, 과정,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다.

교회가 클수록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칫 비전을 망각하기 쉽다. 따라서, 비전과 사명을 자주 강조하고 상기시켜야 한다. 그 비전을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교인의 열정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래야 과정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그에 맞게 올바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의와 교재를 결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목회자가 일일이 주관할 수 없을수록 중요해진다.

● 작은 교회는 관계, 문화, 역사에 우선순위를 둔다.

비전, 과정, 프로그램이 작은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작은 교회가 과정과 프로그램을 크게 강조하면 비인격적이고 통제에 초점을 두는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혹은 팬스레 거창한 척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다. 큰 교회에서 안정감을 주는 체계가 작은 교회에서는 마치 기업 같은 냉랭한 분위기를 조장해 작은 교회를 찾는 대다수가 원하는 '인격적 관계'를 축소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작을수록 관계, 문화, 역사를 우선시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작은 교회일수록 친밀한 관계는 중요하다. 작은 교회일수록 숨겨진 완고한 태도의 문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기 쉽다. 교회의 기억과 자체 역사가 역동성 있게 발휘되도록 애쓰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올 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신년 심방이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 퇴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제직/사역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제: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5. 선교사 부부 초청 찬양집회와 여성 회복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17-19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 교우 동정 : 김윤경 사모,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 이달의 생일 축하 : 정시현(2.5) 구민경(2.28) 유동숙(2.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주일예배기도	2/3	2/10	2/17	2/24
	박진성집사	고순제전도사	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
금요일예배기도	2/8	2/15	2/22	3/1
	유동숙집사	정홍렬목사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2/3	2/10	2/17	2/24
	박진성집사/정줄리권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란?** / 시도행전 20:17-27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와 함께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본을 남겼다. 매 해 우리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고백해야 한다. 또한, 나의 보화를 쌓은 천국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며 살았다는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더 많은 기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고린도전서 3:16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가 지성소가 되는 이유와 축복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역할은?

하나님의 지성소다운 교회와 성도로서 요구되는 결단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고린도전서 3:16

오늘은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죄 용서함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짓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그래서 죽는 날까지 꿈꾸며 사모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름답게 지어 놓고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이름을 두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미 불타버리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에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토록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놀랍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우리가 그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확실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성전의 주인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맞게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까지 내가 법사에 잠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February 3, 2019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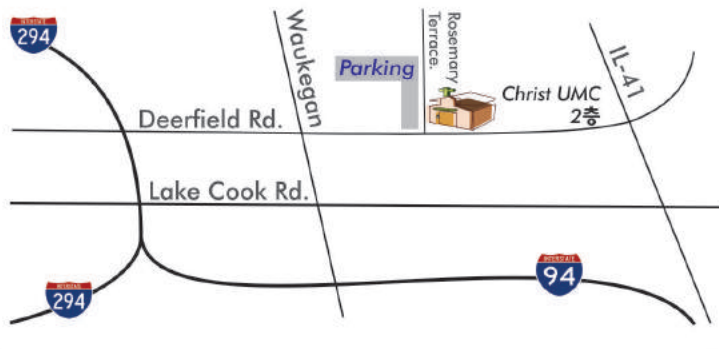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2월 3일

5-5호

기도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